

광양 ‘구봉산 숲속야영장’ 체류형 관광명소 예감

LO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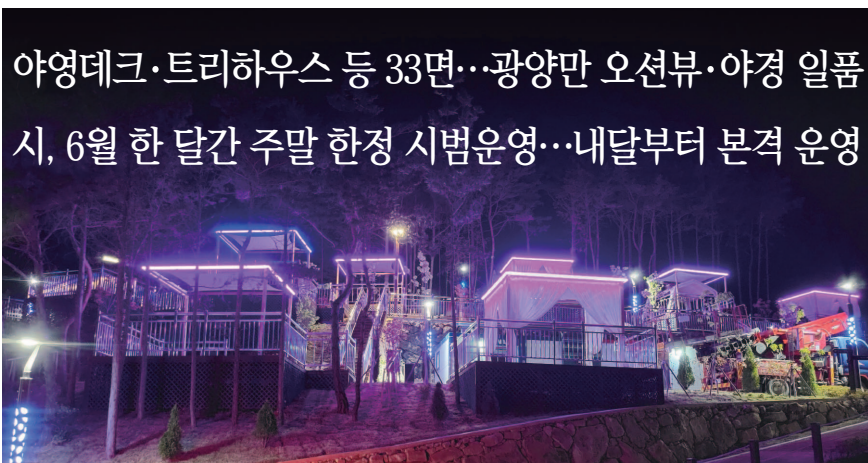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관광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관광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 민선 8기 광양시가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도시의 밑거름을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구봉산 숲속야영장’ 개장식을 개최, 6월 한 달간 주말에 한해 야영장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행사에는 정인화 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골약동 주민, 캠핑참가자, 관계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개장식은 광양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 김미란 관광과장의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개장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구봉산 숲속야영장은 2021년 산림청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된 시설로, 어린이테마파크 내



야영데크·트리하우스 등 33면...광양만 오션뷰·야경 일품시, 6월 한 달간 주말 한정 시범운영...내달부터 본격 운영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목표로 국·도비 19억원을 포함해 총 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야영장은 총 33면(야영데크 28면, 트리하우스 5동)에서 동시 야영이 가능하며,

웰컴센터, 손수레보관소, 취사대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특히 구봉산을 등지고 광양만을 내려다보는 오션뷰와 이순신대교, 국가산단의 야경까지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경관 덕분에 힐링형 체류 관광지

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이용자 모니터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뒤,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문객들이 캠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간제 이용 요금을 도입하고, 매점, 어린이 놀이시설, 경관조명 등 부대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광양소재전문화관, 상상놀이터, 클라이밍센터, 구봉산관광단지 등과 숲속야영장을 연계해 이 일대를 남해안 남중권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야영장 이용 요금은 시설 규모에 따라 2만5000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책

정된다. 예약은 6월 중순부터 인터넷 예약사이트 ‘캠핏’(www.camfit.co.kr)을 통해 가능하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구봉산 숲속야영장은 소재전문화관, 상상놀이터, 클라이밍센터 등 어린이 테마파크를 구성하는 콘텐츠 중 하나로, 오늘 개장식은 구봉산 관광개발의 신호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와 협력하고 있는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이 내년에 준공되고, 레저와 고급 숙박시설을 갖춘 구봉산관광단지가 완성되면 구봉산권이 웰니스 관광지인 백운산권, 수변힐링지인 섬진강권 등과 함께 천만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실현하는 경쟁력 있는 관광거점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고흥형 전남 블루웨이케이션 운영

참가자 최대 30만원 인센티브

고흥군은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결합한 ‘전남 블루웨이케이션’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흥형 전남 블루웨이케이션 사업은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을 거점으로 참가자를 맞이한다. 기업, 공공기관, 1인 사업자, 디지털노마드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와 힐링을 동시에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에게는 체류 기간에 따라 2박 3일 기준 20만원, 3박 4일 기준 최대 30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특히 △웨이케이션 패스 제공(식사와 카페 이용권, 커피농장 체험, 숲 치유 프로그램 등) △쏘카(SOCAR) 쿠폰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웰컴키트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전남관광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흥은 일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이번 블루웨이케이션을 통해 고흥의 매력을 많은 이들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장흥, 숙박시설 민간합동 점검

전열기·소방시설 등 확인

장흥군은 최근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최근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 조치다.

주요 점검사항은 객실 내 가스·전열기 안전상태, 비상대피 동선,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가스누출·경보기·비상차단 장치 작동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가정의 달 연휴에 발생한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여수시는 12일 LG화학 여수공장에서 6개 기관과 ‘여수산단 화학사고 육·해상 공동방재지원체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 산단 화학사고 육·해상 공동방재 6개 기관과 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여수시는 12일 LG화학 여수공장에서 6개 기관과 ‘여수산단 화학사고 육·해상 공동방재지원체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육상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물질이 부두와 항만 등 해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여수시와 환경부, 해경, 산단 기업 등 153개 기관이 ‘민관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박봉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기용 여수해양경찰서장, 진기섭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장, 이현규 LG화학 여수공장 주재임원, 최동근 (사)광주·전남 환경기술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여수산단 내 육·해상 화학사고 발생 시 보유하고 있는 방재 물자를 비롯해 선박, 차량, 인력 등을 신속히 동원하고 화학사고 잔류폐기물 회수·처리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관할 지역 외 화학사고도 공동 지원하고, 화학사고와 테러에 대비한 주기적인 실전 대응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정기명 시장은 “육·해상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관 공동방재지원체계를 통해 제1인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며 “산단 근로자의 안전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김성 장흥군수, 모내기 일손돕기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장동면 영농현장을 찾아 모내기 농촌일손돕기에 나서, 모내기 작업과 함께 농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은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운영하고, 이달까지 부서별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한다. 사진제공=장흥군

곡성, 논콩 이모작 신기술 시범 ‘눈길’

논 무굴작 왕겨충진형 배수시설 시공

곡성군은 최근 시범사업 현장에서 논 무굴작 왕겨충진형 배수시설의 시공 과정을 농업인들에게 시연하고 기술 설명회를 개최해 큰 관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쌀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논을 활용한 타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논콩 이모작 재배 신기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전남농업기술원의 도비 지

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곡성군에서는 총 26ha 면적에서 논콩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그중 주요 기술인 ‘무굴작 왕겨 충진형 배수시설’은 논 배수 문제를 해결하고, 콩 재배에 적합한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굴작 왕겨 충진형 배수시설’은 트랙터를 이용해 논의 심토를 파쇄하지 않고, 그 틈에 왕겨를 채워 배수층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기존 굴작기를 이용하는 방식보다 시공이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 토양의 배수성을 높여 습해를 줄일 수 있으며, 농가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향후 논에서도 발작물 재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완료한 뒤 작황과 수익성 등을 분석해 효과가 입증되면 지역 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논콩 이모작 시범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향후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도 염두에 두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국내 최초 특허
한국인 유래 특허 균주 함유

VHCM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특허등록번호: 10-1772039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100% K-낙산균 200 mg, LactoSpore 200 mg, Bifidobacterium 100 mg, 유산균 10 mg

VITAMIN HOUSE

문의전화 1588-8529

제조원 엔페케이(주) | 유통판매원 비타민하우스(주)